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YOIDO FULL GOSPEL SEONGBUK CHURCH

“듣는 마음” 책자 소개

‘듣는 마음’이란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듣는 마음”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내 안에 임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영성 훈련입니다.

큐티(QT, Quiet Time)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듣는 마음”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 성경을 읽어가고, 말씀에 집중된 기도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듣는 마음’ 활용법

예수님은 이천년 전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듯, 오늘날에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재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마태복음 6:9-10)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내게 맞추려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게 적용하려고 하기보다,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2.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편 1:1-2)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은 조용하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듯(사31:4),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소리내어 고백하며, 선언하고 선포하듯이 읽으십시오.

3.말씀으로 기도하기

(베드로전서 2:1-2) 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기도는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읽기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갓난 아기들과 같이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십시오. 나아가 말씀읽기를 통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읽기와 기도는 결코 나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의 실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 말씀을 읽어가며 말씀으로 기도하여,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 보십시오.

블레싱 타임 : 듣는 마음 ·4

오늘의 성경읽기

블레싱 타임 : 주간 메시지 나눔 ·128

- 8월 2일 공과 - 안식일이 지나서
- 8월 9일 공과 - 벨레데 섬에서
- 8월 16일 공과 -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 8월 23일 공과 -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 8월 30일 공과 - 왕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선교사 열전 ·138

아펜젤러 선교사 (2)

선교지에서 온 편지 ·141

르완다

헝가리

사도행전 20:1-12 교회에 위로하는 부활의 능력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

1 소요가 그치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2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3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4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밋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5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6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죽은 유두고를 살림

7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8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는데 9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 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10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1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사기 16장

30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예레미야 29장

11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마가복음 15장

34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읽기 가이드

사도행전 20:1-12

교회를 위로하는 부활의 능력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1~6절)

바울은 궂대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소요가 그치자마자 그는 계획했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의 목적은 첫째, 소아시아에서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의 공통점은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돕기 위해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여행했고, 직접 갈 수 없을 때는 편지를 보내 성도들을 권면하고 교훈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품은 사람이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꾼입니다.

죽은 유두고를 살림(7~12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주간의 첫날, 즉 주일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강론이 밤중까지 이어지자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두고의 죽음은 한창 타오르는 복음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드로아 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다줄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생으로 인해 이 위기가 오히려 드로아 교회에 위로와 격려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드로아 성도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증거 삼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드로아 성도들이 이후에 겪게 될 고난과 핍박을 이겨 내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도행전 21:1-14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가야 할 길**두로의 제자들과 바울**

1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2**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러 함이러라 **4**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5**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6**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가보의 예언

7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9**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10**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12**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사사기 17장**

6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레미야 31장

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마가복음 16장

15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21:1-14

주위의 만류를 부리치고 가야 할 길

두로의 제자들과 바울(1~6절)

밀레도를 떠난 바울은 수리아의 두로에 도착해서 그곳 신자들과 교제를 나누며 7일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신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고난을 알려 주시자, 그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신실한 성도들의 애정 어린 권면은 큰 도움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기 전에 그러한 권면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충고와 대적자의 위협 앞에서 쉽게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일꾼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아가보의 예언(7~14절)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을 전합니다.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 결박당한 모습을 직접 보여 주면서 바울이 당할 일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예언을 바울을 막으시려는 성령님의 경고 메시지로 이해하고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막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예언을 성령님이 앞날의 일을 알려주셔서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자신을 막는 사람들 앞에서 굳은 각오를 다시 한번 표명합니다(13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을 내 입장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도행전 22:1-16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시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1 부형들이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2**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3**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 **4**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5**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회심의 경험을 증언한 바울

6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7**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9**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0**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12**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자가 **13**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14**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16**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사기 18장

10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 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예레미야 32장

27 나는 야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시편 2편

11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이다

읽기 가이드

사도행전 22:1-16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시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1~5절)

바울은 자신이 가진 재능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 온전히 사용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철학자면 철학자의 언어로, 상인이라면 상인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청중이 유대인이었기에 히브리 방언을 사용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가말리엘 문하에서 교육을 받아 율법에 정통한 사람임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눈높이로 다가가려고 애썼습니다. 복음의 일꾼에게는 이러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상대방과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에게는 젊은이의 언어와 문화로, 여성에게는 여성의 감성과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서 복음의 정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힘써야 합니다.

회심의 경험을 증언한 바울(6~16절)

유대 회중 앞에서 자신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을 보인 유대인이었음을 이야기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회심이 유대교에 대한 변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면서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가 자신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고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해 주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의 회심을 이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음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겪은 구체적인 영적 경험을 고백하며 유대인들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적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도행전 23:1-16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하다

공회 앞에서 증언하는 바울

1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2**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3**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4**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5**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6**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인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문을 받노라 **7**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8**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9**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10**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1**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 살해 음모

12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13**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 명이더라 **14**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15**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16**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사기 19장

19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짚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예레미야 33장

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시편 3편

3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4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느도다 (셀라)

사도행전 23:1-16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하다

공회 앞에서 증언하는 바울(1~16절)

공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론하는 바울의 행적이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은 공회를 구성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에 부활 논쟁을 유발하여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모진 고초 속에서도 신앙 양심을 팔기는커녕 도리에 강단 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악인의 죄를 경고하는 그의 모습은 사도로 인정되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악한 길로 가는 발걸음을 더욱 빨리합니다.

바울 살해 음모(12-16절)

유대인들의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구체화됩니다. 그들은 40명의 사람들을 동원해 암살 조직을 결성한 후에 은밀히 매복하였다가,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심문을 받으러 갈 때에 습격하여 그를 죽이자는 암살 계획까지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조카를 통해 그를 위험으로부터 구출해 주십니다. 한편 유대인들의 암살조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도행전 24:1-21 바울을 고발하다

더들로의 고발 내용

1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2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3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4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5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6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6하반-8상반 없음) 8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9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바울의 변론

10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11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12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13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14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16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17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18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19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20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21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사기 20장

18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벤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34장

22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시편 5편

3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사도행전 24:1-21

바울을 고발하다

더둘로의 고발 내용(1-9절)

바울이 총독에게 이송된 지 5일 후에 예루살렘에서 소위 원고인들이 내려와 바울을 고소하였는데, 그들은 더둘로라는 변사를 시켜 대변케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나사렛 예수라고 일컫는 이단을 추종하고 전파한다는 것과 둘째, 유대인의 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다는 것, 셋째, 위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로마제국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요를 일으킬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인 문제만으로는 바울을 사형에 처할 수가 없으니,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구실을 덧붙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여기서 총독 벨릭스에게 아첨을 하며, 그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판결을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유대인들의 알박한 계획이(3절) 드러나기도 합니다.

바울의 변론(10~21절)

바울은 사실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의 소송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단을 청종한다는 대목에 대해서 바울은 진솔하게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송사가 그릇되었다고 폭로하며 자신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기소당했다고 변론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도행전 25:6-22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다

베스도 앞에서의 변론

6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팔 일 혹은 십 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7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8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9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 10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11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12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그립바 왕의 자문

13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14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15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16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17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18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19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20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심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21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 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22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사기 21장

25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레미야 35장

16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시편 8편

2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읽기 가이드

사도행전 25:6-22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다

베스도 앞에서의 변론(6-12절)

바울을 고소하는 무리들은 다시 가이사랴에 내려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바울을 죽일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재판이 무산될 지경에 이릅니다. 이때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의향이 없느냐고 묻는데, 아마도 이것은 자기 전임자가 유대인들에게 잃은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회유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서 황제 가이사를 만나서 탄원을 해야겠다는 의향을 비추어 총독 베스도의 허락을 얻어냅니다. 비록 자유의 몸은 아니었으나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케 되었습니다.

아그립바 왕의 자문(13-22절)

아그립바는 로마 황제가 유다 북쪽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해 준 로마 복속국의 왕으로서 베스도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베스도는 자기가 맡고 있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유대 풍속과 사정에 밝은 그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가이사에게 죄인을 보내려면 그 죄인에 대한 합당한 보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바울에게서 아무런 상소 이유를 발견하기 못했기 때문에 베스도는 더욱 다급했던 것입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도행전 26:9-23 아그립바 앞에서의 변론

바울의 과거 회상

9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10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11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12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사명

13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4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15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16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명대로 순종한 바울

19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20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21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2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23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룯기 1장

16 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레미야 36장

10 바룩이 야훼의 성전 위뜰 곧 야훼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시편 9편

9 야훼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읽기 가이드

사도행전 26:9-23

바울이 변명하다

아그립바 앞에서의 변론(9-23절)

사도행전은 가이사 앞에서 변증하는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본 단락에 나타난 말씀이 바울의 최후의 자기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바울은 자신의 회심 사건을 정면에 내세워서, 자신도 전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핍박자였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그 후에 회심을 통하여 이방 선교의 사도로 세우심을 입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변론에서 유달리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마도 유대인의 풍습과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아그립바 왕을 의식한 바울의 의도적인 전략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방 선교 부분을 언급하면서 그 사명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낸 발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못 박습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의 송사가 결국은 조상들이 전하여 준 말씀과 성경을 믿기를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21-22절).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도행전 27:1-12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

1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2**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3**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 받기를 허락하더니 **4**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5**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 시에 이르러 **6**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7**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8**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새아 시에서 가깝더라

잘못된 결정과 그 결과

9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2**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뵈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뵈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룯기 2장

13 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레미야 38장

2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시편 10편

12 야훼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27:1-12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1-8절)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여행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지만, 그의 여행은 단순한 죄수의 이송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성도는 바울의 여행 중 발생한 사건들을 통해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바울이 탄 배는 악천후를 만나고 항해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항해가 위험할 것을 경고하지만, 백부장과 선장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계속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할 때 겪게 되는 위험을 상기시켜줍니다.

잘못된 결정과 그 결과 (9-12절)

백부장과 선장은 바울의 권고 대신 항해를 계속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좋은 항구가 아닌 페닉스 항구로 가려 하다가 결국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결정이 신중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때때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도는 바울처럼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도행전 28:1-15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함

멜리데 섬에 오르다

1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2**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3**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4**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5**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 그들은 그가 붓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7**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8**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9**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10**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이 로마로 가다

로마로의 여정

11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12**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13**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14**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5** 그 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룻기 4장

14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 39장

18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 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시편 11편

4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읽기 가이드

사도행전 28:1-15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함

멜리데 섬에 오르다(1-10절)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 겪은 일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섬에서의 체험과 로마로의 여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배가 난파되어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섬 주민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불을 피워줍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모으던 중 독사에 물리지만, 아무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섬 주민들은 처음에는 그를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를 신으로 여깁니다. 바울은 섬의 주요 인물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기도로 치유합니다. 이후 섬의 다른 병자들도 바울에게 나아와 치유를 받습니다. 이에 섬 주민들은 많은 선물을 주며, 바울 일행이 출발할 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로마로의 여정(11-15절)

섬에서 3개월을 보낸 후,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합니다. 여정 도중 여러 도시를 경유하며 각 지역에서 믿는 형제자매들의 환대를 받습니다. 로마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형제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 나와 그를 격려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한 보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완전한 섭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처럼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1:1-18 간구와 역사하는 믿음

엘가나의 실로 순례

1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2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3 이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야훼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야훼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4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 매년 한나가 야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브닌나의 괴롭힘과 한나의 기도

9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 때에 제사장 엘리는 야훼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2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3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4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15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17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니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로마서 1장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레미야 40장

1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편 13편

3 야훼 내 하나님이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무엘상 1:1-18

간구와 역사하는 믿음

엘가나의 실로 순례(1-8절)

본문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야기는 한나의 깊은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사람으로, 그의 두 아내는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있는 야훼의 집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 습니다. 제사 후 엘가나는 한나에게 특별한 몫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브닌나의 괴롭힘과 한나의 기도(9-18절)

브닌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를 괴롭히며 조롱 합니다. 이에 야훼의 집에 올라가 통곡하며 기도 하는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며 아들을 주시면 평생 나실인으로 드린다고 약속 합니다. 한나의 깊은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그녀의 절망을 넘어 응답으로 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간절하고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스리며 바른 길로 지도할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에 민족을 생명 길로 인도한 지도자의 배경에는, 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씨가 심기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나와 같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무릎으로 엎드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2:1-17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한나의 기도

1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야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2** 야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3**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이다 야훼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4**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다시 주리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6**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의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9**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 야훼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야훼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11**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

12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13**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은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 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5**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려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16**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야훼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로마서 2장

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레미야 41장

1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시편 16편

8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무엘상 2:1-17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한나의 기도(1-11절)

한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본문은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십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십니다(6~8절). 공의로게 다스리시며 심판하는 하나님, 또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의인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게 그의 대적을 하늘에서 우레로 치십니다(9~10절).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12-17절)

엘가나는 라마 집으로 돌아가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불량한자들이기에 야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무시하므로 제사 드릴 때 백성들의 고기를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본문은 한나의 신앙과 감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통해 신앙의 타락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비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여 엘리의 아들들처럼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나처럼 야훼의 공의로움을 높이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3:1-14 소명

늘 깨어 성실함으로 야훼를 섬기는 사무엘

1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 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야훼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4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 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6** 야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이 내 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7** 사무엘이 아직 야훼를 알지 못하고 야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8** 야훼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야훼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11**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2**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4**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로마서 3장

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 42장

11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시편 17편

1 야훼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율부짓음에 주의하소서 거짓 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사무엘상 3:1-14

소명

늘 깨어 성실함으로 야훼를 섬기는 사무엘(1-3절)

당시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여 야훼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또한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불신앙과 부정이 성막에 가득해 온 나라가 더럽혀졌습니다. 결국 이때는 야훼의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엘리의 수종을 들며 그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정도로 가깝게 그의 곁에 있었고, 하나님의 전 앞에 누워 잠들 정도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긴 자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늘 깨어있던 한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4-14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은 매우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내신 방법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엘리가 부르는 것으로만 알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사무엘은 어리기도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생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무엘을 부르셨고 세 번째 부르실 그 때에 엘리의 지시를 받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하며 낮아짐으로 엎드렸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깨어있는 성실한 삶 속에서 낮아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의 음성이 임하게 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4:1-11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

언약궤를 가져오다

1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 쳤더니 **2**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사천 명 가량이라 **3**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야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4**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야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전쟁의 패배와 언약궤를 빼앗김

5 야훼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6**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야훼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9**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10**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었드러진 자가 삼만 명이었으며 **11**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로마서 4장

7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레미야 43장

1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시편 18편

6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무엘상 4:1-11

하나님 주권적인 임재

언약궤를 가져오다(1-4절)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은 압제의 멍에를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가증할만한 죄악이 있었으며 진정한 회개도 없고 선한 의도로 시작된 전쟁이 아니었기에 전쟁은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이에 그들은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패배하게 하였는가 불평하며 전쟁의 승리를 위해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시적 상징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성한 궤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야훼의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승리의 은총을 베푸셔서 블레셋과의 전쟁도 저절로 승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종교의식으로만 가득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에서 벗어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진영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그 궤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하여 야훼의 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성물에 결코 매이지 않는 분이시며,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전쟁의 패배와 언약궤를 빼앗김(5-11절)

결국 이스라엘 군대는 흩어졌고 전쟁은 크게 패하였으며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교훈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에 달려 있으며, 전쟁 또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겸손히 사모해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5:1-12 홀로 블레셋 땅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다곤 신상을 부수심

1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텔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2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3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4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통이만 남았더라 5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심

6 야훼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7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8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9 그것을 옮겨 간 후에 야훼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10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11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므로 12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로마서 5장

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레미야 44장

24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시편 19편

7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사무엘상 5:1-12

홀로 블레셋 땅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다곤 신상을 부수심(1-5절)

고대에는 나라 간의 전쟁을 그 나라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아스돗의 다곤 신전 안에 들여놓습니다.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긴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만끽하던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날 다곤 신전에 가 보니, 다곤 신상이 마치 하나님께 복종과 헌신을 표시하듯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날에는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이 잘린 채로 문지방 위에 놓여 있습니다. 패배자의 머리와 두 손을 자르는 것은 승리자가 행하는 고대 관습입니다. 이렇듯 다곤이 하나님 앞에 패배하고 넘어져 파괴된 모습은 하나님이 전쟁의 참승리자가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심(6-12절)

블레셋의 신 다곤을 부수신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십니다. 언약궤가 있는 아스돗에 전염성 강한 피부병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 재앙이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의 공격이라 판단하고 언약궤를 가드로 보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다시 에그론으로 보내지만, 에그론에서는 재앙이 더 심각해져 많은 사람이 죽고 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언약궤를 옮겨 갈수록 재앙이 더 심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하나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7:3-17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3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5**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6**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이김

7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 사무엘이 젖 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으며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10**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쫓더라

에벤에셀의 하나님

12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13**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14**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의 사역 요약

15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 해마다 벤엘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로마서 6장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레미야 45장

4 너는 그에게 이르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시편 20편

1 환난 날에 야훼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2** 성소에서 너를 도와 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사무엘상 7:3-17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3-6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대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20년간 평화를 주시고 백성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때가 되자 사무엘이 정치, 종교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다스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시작됩니다.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이김(7-11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침공을 두려워하면서도 담대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믿음과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에베에셀의 하나님(12-14절)

전쟁이 끝난 후,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바위를 세우고 '에벤텔'이라 칭합니다. 에벤텔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침공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 빼앗긴 성읍 에그론과 가드까지 되찾게 됩니다.

사무엘의 사역 요약(15-17절)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선한 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된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9:1-14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다

사울의 등장

1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2**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여개 위만큼 더 컸더라 **3**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4**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5**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6**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7**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8**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대 하더라 **9**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전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전자라 일컬었더라) **10**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11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으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전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12**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13**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려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14**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로마서 7장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레미야 46장

27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시편 22편

3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읽기 가이드

사무엘상 9:1-14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다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1-14절)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세밀한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아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선 사울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우연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에게 계시하신 말씀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구체적으로 예비하시며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그 뜻을 성취해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계획과 섭리가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10:1-16 야훼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

1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야훼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2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쉼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3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불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오려고 뻔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4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5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 네게는 야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7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8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 일 동안 기다리라

영으로 충만한 사울

9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10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11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12 그 곳의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 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13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14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15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16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로마서 8장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레미야 47장

4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 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야훼께서 갑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시편 23편

1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기 가이드

사무엘상 10:1-16

야훼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1-8절)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그에게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에 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영으로 충만한 사울(9-16절)

사울은 사무엘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을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처럼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기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새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11:1-15 사울이 암몬 사람을 치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오다

1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 치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 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2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3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4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5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다

6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7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야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8 사울이 베섹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 명이더라 9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10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11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 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왕으로 인정 받다

12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13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14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야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야훼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로마서 9장

15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예레미야 48장

42 모압이 야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시편 25편

4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상 11:1-15

사울이 암몬 사람을 치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오다(1-5절)

사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일부 불량한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 속한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작은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아무런 무장도 하지 못했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을 때 암몬 사람들은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다(6-11절)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종하는 나하스의 무례함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전역에 사무엘과 자신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하리라고 전합니다. 사울은 백성을 삼대로 나누어 암몬을 쳐서 무찌릅니다.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인정 받다(12-15절)

암몬을 크게 무찌르자 사람들은 사울은 완전한 왕으로 인정해 줍니다. 일부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사울에게 과잉 충성하여 지난번에 비판한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자, 사울은 야훼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백성이 야훼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야훼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12:1-18 사무엘의 고별사

너희 원대로 왕을 세웠다

1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2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3 내가 여기 있나니 야훼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4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5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회상

6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야훼이시니 7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야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야훼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8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야훼께 부르짖으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곳에 살게 하셨으나 9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은지라 야훼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10 백성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야훼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리하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11 야훼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12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움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13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야훼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14 너희가 만일 야훼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따르면 좋겠지마는 15 너희가 만일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면 야훼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16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17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나 내가 야훼께 아뢰리니 야훼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야훼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18 이에 사무엘이 야훼께 아뢰매 야훼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야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로마서 10장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레미야 49장

4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시편 26편

1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를 의지하였사오니 야훼여 나를 판단하소서

사무엘상 12:1-18

사무엘의 고별사

너희 원대로 왕을 세웠다(1-5절)

사무엘의 첫 번째 말은 이제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왕 되기를 바랐습니다.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적과 싸우고 안전을 보장해 줄 사람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참되고 유일하신 왕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포함한 세상의 다른 것들을 결코 왕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회상(6-18절)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며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사무엘을 끝으로 사사시대는 끝나고 이제 왕국 시대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정착하지만 범죄하여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자, 사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또한 여룹바알, 입다, 사무엘 등과 같은 헌신된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늘에서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오셨듯, 우리의 인생도 가장 선하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13:1-15 사울이 야훼 앞에서 망령되게 행동함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1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십 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 년에 **2** 이스라엘 사람 삼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이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므마스라와 벳엘 산에 있게 하고 일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벳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3**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4**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5**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삼만이고 마병이 육천 명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므마스에 진 치매 **6**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망령되이 행함

8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11**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므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5**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벳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육백 명 가량이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로마서 11장

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예레미야 50장

20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 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시편 28편

6 야훼를 찬송함이여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7**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사무엘상 13:1-15

사울이 야훼 앞에서 망령되게 행동함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1-7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항상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2천의 군사로 아들 요나단은 1천의 군사로 위기에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나단의 군사들과 블레셋 수비대의 무력충돌이 일어났고 이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면전을 위해 모든 군사를 모아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비해 싸움에 능한 블레셋은 숫자까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군대의 힘을 자랑하는 병거가 삼만이었고 마병의 숫자는 육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이스라엘의 불리함 가운데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불리함 가운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여 떨며 숨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싸우기도 전에 블레셋에 대한 공포로 전쟁터는 삼시간에 불리한 전황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망령되이 행함(8-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위협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과 사울은 두려움에 떠는 상황에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속히 오지 않자 초조해진 사울은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써 백성들을 돌볼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자신이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14:1-15 요나단의 신앙과 용기,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표징을 구하는 요나단

1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2**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 한 백성은 육백 명 가량이며 **3**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야훼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4**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5**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므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6**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야훼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8**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9**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10**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야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승리한 요나단

11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12**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13** 요나단이 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14**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만나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죽인 자가 이십 명 가량이라 **15**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로마서 12장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레미야 51장

52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시편 30편

4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읽기 가이드

사무엘상 14:1-15

요나단의
신앙과 용기,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표징을 구하는 요나단(1-10절)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는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사울도 제사장도 적의 동태만 살피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부하 한 명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싸우려 합니다. 그곳 지형이 매우 험했음에도 요나단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니다. 요나단은 자신들이 움직이면 혹시 하나님의 일하실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합니다. 그가 대범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승리한 요나단(11-15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은 자기들 앞에 나타난 요나단을 조롱합니다. 이때 요나단은 “올라오라”라는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블레셋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20명을 죽입니다. ‘반나절 같이 땅’은 대략 13-18m 거리로, 이는 요나단이 얼마나 재빠르게 무기를 휘둘러서 병사를 죽였는지 강조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전쟁에 참전하십니다.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진이라는 초자연적 힘으로 블레셋을 치신 것을 의미합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15:1-12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 왕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사울

1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2**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4**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 보니 보병이 이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5**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6**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7**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8**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사울로 인하여 후회하심

10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12**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로마서 13장

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예레미야 52장

15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16** 가난한 백성은 남겨 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시편 31편

18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사무엘상 15:1-12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 왕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사울(1-9절)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에게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일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에 아말렉을 치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백성은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사울은 수십만의 군사를 소집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은 싸움에 강한 족속이었고 이스라엘도 이 전쟁에 모든 전력을 쏟아 붓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고 아말렉의 왕 아각까지 사로잡는 대단한 성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아각을 사로잡을 뿐 죽이지 않았고 또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하찮고 쓸모없는 것들만 죽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척만 할 뿐 진심으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말씀에 따르고 불리한 것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로 인하여 후회하심(10-12절)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울로 인해 사무엘 또한 근심하며 온 밤을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사울이 맨 처음 겸손한 모습으로 왕으로 세워진 모습을 기억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16:1-13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택하시다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1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2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3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4 사무엘이 야훼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5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야훼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6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8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9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10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13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로마서 14장

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예레미야애가 1장

11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루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야훼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시편 32편

1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무엘상 16:1-13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택하시다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1-3절)

교만하고 불순종한 왕인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울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새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사무엘은 진심으로 사울을 위해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롭게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며,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4-13절)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소식을 사울왕이 듣게 된다면 사울왕이 어떤일을 벌일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へ가서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가라하십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의 용모를 보며 이 사람이다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7절을 통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결국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던 막내 다윗을 불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게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17:39-52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싸워 이기다

다윗이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과 싸우다

39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희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41**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42** 그 블레셋 사람이 돌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43**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4**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46**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8**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

50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51**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52**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로마서 15장

13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애가 2장

19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시편 33편

4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무엘상 17:39-52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싸워 이기다

다윗이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과 싸우다(39-49절)

골리앗은 싸움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는 거대한키와 몸을 가지고 있었고 무기 또한 엄청난 무용을 뽐내었습니다. 그러한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타났을 때 그는 분개하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비길만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용모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젊고 붉고 아름다웠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 자리에 그 어떤 무기가 될만한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대기와 물매, 돌 다섯이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자신과 싸우러 나온 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보며 골리앗은 이 싸움과 전쟁은 자신들의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다윗에게 달려 나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45절)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외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50-52절)

쓰러진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는 다윗의 모습은 믿음으로 야훼를 의지하여 사단의 세력을 단호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편 다윗의 승리에 힘입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위축되었던 모습에서 벗어나 일제히 일어나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갔으며 승리를 얻게 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18:1-16 다윗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음

다윗과 요나단과의 우정

1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2**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3**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겹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5**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높여짐

6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8**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나 하고 **9**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0**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 없이 떠돌아다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 지라 **11**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12** 야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3**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겹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14**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6**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로마서 16장

19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4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시편 34편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무엘상 18:1-16

다윗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음

다윗과 요나단과의 우정(1-5절)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 깊은 우정을 맺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마치 그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자기가 입었던 겔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었던 것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자로서 품위와 위용을 갖고 있는 전쟁에 필요한 도구와 군사들을 지휘할 수 있었던 도구였습니다. 또한 그의 겔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다음 왕위 계승자가 입고 있었던 상징적인 의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뒤이어 다윗이 왕위계승자임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고 아꼈 것처럼 훗날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 이후에 갇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죽었을 때 그의 죽음에 진심으로 슬퍼하였습니다(삼하1:17-27). 또한 요나단의 살아남은 아들, 므비보셋을 직접 찾아내어 그에게 사울이 가지고 있던 밭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항상 그의 생존과 살림살이를 살피겠다는 다윗의 의도입니다. 왕권이 바뀌면 이전 왕의 자손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다윗은 요나단과 진심으로 우정을 나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높여짐(6-16절)

다윗에 대한 백성의 칭송이 대단했습니다.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은 몹시 불쾌하여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죽이려합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은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울을 다윗을 자신의 곁에서 멀리하여 천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전화위복이 되어 백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19:1-17 |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심

다윗을 감싸주는 요나단

1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2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3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 주리라 하고 4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야훼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6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7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다윗, 사울에게서 도망치다

8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9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11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12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13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14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15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16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17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레미야애가 4장

22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시편 35편

9 내 영혼이 야훼를 즐거워함이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사무엘상 19:1-17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심

다윗을 감싸주는 요나단(1-7절)

사울만큼 부당하고 잔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다윗이 가까이 있을 때 몇 번이나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왕이 내린 명령이므로 신하들은 다윗을 죽여야만 했고 다윗은 궁지에 몰립니다. 그 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이미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기에 다윗 때문에 요나단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돕게 됩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죽이려는 모든 계획을 알려주어 숨어 있게 하고 아버지 사울에게 찾아가 다윗의 변호를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고 그로 인해 블레셋에게 승리했던 사실을 말합니다. 이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으로 야훼 하나님께 범죄 하는 것이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간절한 요나단의 중재는 설득력이 있어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사울에게서 도망치다(8-17절)

다윗은 연이은 블레셋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사울 곁에 서게 됩니다. 그는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게 됩니다. 누가봐도 다윗의 공로를 인정해주어야 할 그 때 사울은 단창을 던져 또 다시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와 미움이 사울에게 악령이 씌우게 만든 것입니다. 단창을 피한 다윗을 죽이려 사울은 군사들에게 다윗의 집에서 그를 죽이라 명령합니다. 이미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었지만 사울의 눈에는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고 사리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또 다시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20:1-16 다윗이 위기 가운데 구원받음

사울의 심중을 시험하다

1 다윗이 라마 나뭇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2**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3**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야훼의 살아 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4**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5**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6**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 세히 묻거든 그 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7**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8**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네 종에게 야훼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나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손들의 안위를 부탁하다

9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10**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11**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12**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피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13**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 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야훼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14**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야훼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 야훼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16**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야훼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이다 하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레미야애가 5장

19 야훼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시편 36편

7 하나님이며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사무엘상 20:1-16

다윗이 위기 가운데 구원받음

사울의 심종을 시험하다(1-8절)

다윗은 궁을 떠나 멀리 피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억울함을 그의 친구 요나단에게 쏟아놓습니다.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1절) 다윗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다윗은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는데 자신과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에 충성하였고 사울의 왕권을 탐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요나단을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공경에서 구해주려 합니다. 아버지 사울의 진심, 다윗을 진짜 죽이려는지 아닌지 알아내는 책략을 실행합니다. 다윗이 왕의 식사 자리에 빠지므로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사울왕의 진심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손들의 안위를 부탁하다(9-16절)

요나단은 자기가 죽은 뒤에도 다윗이 자기 집, 즉 요나단의 후손들에게 대하여 보살펴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요,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약속되어야 할 것들이 맹세가 이루어 집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지금은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께 몇 번이나 불순종하여 사무엘 선지자에게 질타를 받았으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을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는 아버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맹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21:1-15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다윗, 배고픔에 아히멜렉에 도움을 청함

1 다윗이 뉘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2**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리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3**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4**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5**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삼 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였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였나이가 하매 **6**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야훼 앞에서 물려 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 낸 것이더라 **7**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야훼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역이라 이름하는 애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8**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하므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9**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싸여 예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블레셋 땅에서 다윗의 정체가 들어남

10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1**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가 한지라 **12**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쪽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14**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7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에스겔 1장

3 갈대아 땅 그발 강 가에서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시편 37편

27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사무엘상 21:1-15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다윗, 배고픔에 아히멜렉에 도움을 청함(1-9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로 인생의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왕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를 요나단을 통해 정확히 확인한 다윗은 사울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피하려 합니다. 그는 이전의 두려웠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전에 골리앗을 죽여 백성의 환호를 받았던 기억도, 천부장으로써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기억도 모두 지워내야 합니다. 지금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왕을 피해 다녀야만 합니다. 사울왕의 눈을 피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왕이 죽이라 하였기에 이스라엘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자는 것도 먹는 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 장면중 하나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진설병을 얻어먹은 장면입니다. 이토록 그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서 다윗의 정체가 들어남(10-15절)

다윗은 이스라엘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숨기로 한 곳이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가드였습니다.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는 사울의 대적이었기에 사울의 손길이 가드까지 미치지 않을 거라고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곧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다윗은 옛날 골리앗을 죽인 용사로서 블레셋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다급해진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여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아기스는 자신의 집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다윗을 자신의 집에 데려왔으며 신하들을 책망했습니다. 다윗을 보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 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안전한 것 같아도 좌악 된 인간의 마음은 쉽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떤 위험에서도 당신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을 돌아보지 말고 먼저 파란치 이신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여야 합니다. 왕이 되기 위해 수많은 고통을 겪는 과정은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23:1-14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

그일라를 구원한 다윗

1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2 이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3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 이리이까 한지라 4 다윗이 야훼께 다시 묻자온대 야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5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께 다시 묻다

6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7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8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9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10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 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12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13 다윗과 그의 사람 육백 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14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9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에스겔 2장

6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시편 38편

21 야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사무엘상 23:1-14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

그일라를 구원한 다윗(1-5절)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들이 추수한 것을 약탈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들은 다윗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일라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뜻을 묻게 됩니다. 도망자로 살아가기도 힘든 마당에 남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주저하고 반대합니다. 이에 다시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다르게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세상의 왕들과 달리 하나님의 신정통치를 펼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 진정한 왕의 기질이 이 어려운 시기에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묻다(6-14절)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그를 자기 손에 넘기셨다고 좋아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다윗은 하나님께 또 다시 묻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물음에 말씀 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공격할 것과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하여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해준 그일라의 배반을 보며 다윗은 커다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후에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배신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24:1-15 |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주심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

1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이다 하니 2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3 길 가 양의 우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4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겂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5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뽕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찢려 6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의뢰하는 다윗

8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9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10 오늘 야훼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11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겂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2 야훼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야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3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14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йка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15 그런즉 야훼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시 나의 사정을 살피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4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5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멀하고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에스겔 3장

17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시편 39편

12 야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읽기 가이드

사무엘상 24:1-15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주심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1-7절)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엔게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쫓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3천명의 정예 군사를 뽑아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한 나라의 정예 군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협입니다. 다윗은 왕에게 쫓기는 몸으로 그의 머리 둘 곳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사울에게 거꾸로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 홀로 굴에 들어간 곳이 하필이면 다윗과 그 무리들이 숨어 있던 굴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목숨은 이제 바람위에 등불처럼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이 사울에게 달려든다면 사울은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인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칠 수 없다는 말을 하며 사울의 겹옷 자락만 베고 그 누구도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의뢰하는 다윗(8-15절)

다윗은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합당한 존경을 표하며 사울의 오해와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에 대해 호소합니다. 다윗은 야훼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치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신이 잘라낸 겹 옷자락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범죄한 일이 없음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자신과 사울 사이에 재판장이 되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의 손에서 건지실 것을 기대합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사무엘상 25:1-17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는 나발

나발에게 은혜를 구하는 다윗

1 사무엘이 죽으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 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2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오 염소가 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 털을 깎고 있었으니 3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4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 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5 다윗이 이에 소년 열 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6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7 네게 양 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8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어리석은 나발의 행동

9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10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즈음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12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13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사백 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이백 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14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15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16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17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에스겔 4장

4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시편 40편

11 야훼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사무엘상 25:1-17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는 나발

나발에게 은혜를 구하는 다윗(1-8절)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한 후 안전을 위해 바란 광야 마온에 이르러 재물이 풍성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일행의 양식을 위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양 떼를 소유하였는데, 마침 양의 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잔치인 양털 깎는 날을 맞이하여 다윗은 소년들을 통해 공손하게 양식을 제공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나발이 엄청난 재물을 누리며,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은 세상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노력으로 큰 재물을 모으고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움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부유한 자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등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하고 도와주라 하셨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다윗은 나발에게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어리석은 나발의 행동(9-17절)

나발은 다윗이 보낸 사람들의 요청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묵살하였습니다. 나발은 그의 목자들이나 양들이 도움 받았던 것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이 누구냐며 그를 경멸하고 모욕했습니다. 나발이 수많은 양 떼를 거느리면서도 도적들의 약탈을 당하지 않고 양들을 잘 보존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과 그 군사들의 보호 때문이었습니다. 나발은 이웃에 대한 관심은 없었고 오직 자신의 힘만을 믿으며 살아온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이웃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내 소유를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웃에 대한 베품에 대해 인색하게 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8월 2일
공과

안식일이 지나서

🎵 하나님 찬양하기

-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
-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

마음 열기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마가복음 16장 1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안식일이 지나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는 게 그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러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러져 있었습니 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 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 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 타나셨습니다.

말씀
나누기**관찰과 묵상**

본문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등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무덤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인지 기록해 봅시다.

적용과 나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누어 봅시다.

관찰과 묵상

본문에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증언 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을 여자들은 믿고 제자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여자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부활 증언을 믿었을 까요? 찾아서 기록해 봅시다.

적용과 나눔 삶에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
다지기

예수님이 2천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에 우리에게 큰 효험이 있습니다.

말씀으로**기도하기**

1.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2.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멜레데 섬에서

🎵 하나님 찬양하기

-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405장 주의 친절함 팔에 안기세

마음 열기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바울 일행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구조됩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입니다. 바울 일행이 상륙한 곳은 ‘멜레데’라는 작은 섬으로, 지금의 ‘몰타’입니다. ‘원주민’(2절)에 해당하는 헬라어 ‘바르바로스’는 ‘야만인’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바울 일행은 어떻게 되었나요?(행28:1-2, 27:22-25)

2. 바울은 원주민들의 영접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행28:3)

적용과 나눔 바울 일행은 광풍으로 인해 조난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들은 죽지 않고 구조되었습니다. 나의 삶은 상황에 의해 이끌려 간다고 믿나요? 아니면 말씀에 이끌려 간다고 믿나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 있다면 나눠보세요.

관찰과 묵상

1. 독사에 물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 바울을 본 멜리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행28:7-10)

적용과 나눔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장소 멜리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자리에 머물고 있나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말씀
다지기

독사에게 물린 바울이 죽지 않자, 멜리데 사람들은 그가 ‘신’이기에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이나 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불순종하거나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자신의 마음입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사명의 끝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합니다.

2.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8월 16일
공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 하나님 찬양하기

- 90장(통98)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 338장(통364)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서는 성경이라는 목걸이에서 가장 중요한 다이아몬드다’라고 말합니다. 인류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강력한 복음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큰 갈등 앞에 복음을 다시 설명하며 그들을 다시 연합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담긴 로마서는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워왔습니다. 로마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을 공감하는듯한 바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관찰과 묵상**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신이 깨달은 바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 두 가지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각각 무엇인가요?(21절)

적용과 나눔 우리 안에 종종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반대로 죄를 범하게 하는 두 가지 마음이 대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 보세요. 또한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관찰과 묵상

바울은 이런 두 마음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상황에 어떻게 감사의 고백이 나왔는지 유추하여 대답해 봅시다.

적용과 나눔 로마서 전체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해 들은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은혜” 찬양을 함께 부르세요.

말씀
다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1.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기

2.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8월 23일
공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 하나님 찬양하기

-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 받는 자
- 주를 위한 이곳에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사울의 이야기가 일단락을 맺고 다윗이 역사 가운데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일찍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윗의 등장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직접 드렸던 사울 왕에 대하여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으며(13:14), 또다시 야훼 하나님의 아말렉 진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떼어 줄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15:28).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사무엘이 사울의 눈을 피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지침은 무엇이었나요?(삼상 16:2)



적용과 나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상하고, 근심에 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곤경에 처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상황을 열어주신 기억이 있다면 한번 나눠 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승리하기를 결단합니다.

관찰과 묵상

1.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누구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나요?(삼상 16:7, 11~13)

2. 다윗은 악령으로 번뇌하는 사울을 무엇으로 상쾌하도록 낮게 했나요?(삼상 16:13, 15, 23)



적용과 나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지거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과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판단하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 은혜로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많이 흔들리고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 나가 회개하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중심을 보는 눈이 생기길 결단합니다.

말씀
다지기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와 환경과 그 사람의 삶의 궤적만을 지켜보시고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다스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2.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사람의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8월 30일
공과

왕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

🎵 하나님 찬양하기

-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 309장 목마른 내 영혼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기름부음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이어 두 번째 왕으로 내정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과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를 본 사울왕은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광야를 전전하면서 사울의 쫓김을 피해 도망자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는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사울왕은 다윗이 언제든 광야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삼상 24:1)

2. 사울왕은 얼마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의 무리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까?
(삼상 24:2)

적용과 나눔 한 나라의 왕에게 쫓기는 다윗은 어디하나 맘 놓고 피할 곳이 없습니다. 광야로 도망쳤지만 그곳에 숨어있다는 제보가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택한 군사 3천이나 다윗을 쫓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숨이 막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나요?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관찰과 묵상

1. 추격중인 사울왕은 뒤를 보려 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곳은 다윗과 그 무리들이 숨어있던 곳입니다. 이것을 본 다윗의 무리는 다윗에게 사울을 어떻게 하자고 하나요? (삼상 24:3-4)

2.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데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또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삼상 24:6-7)

적용과 나눔 다윗은 사울왕을 죽인다면 고단한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야훼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 즉 사울을 죽이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삶에 위기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하십니까? 아니면 내 방법대로 행하십니까? 나누어 봅시다.

말씀
다지기

사울을 이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부음 받은 정통성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에 수많은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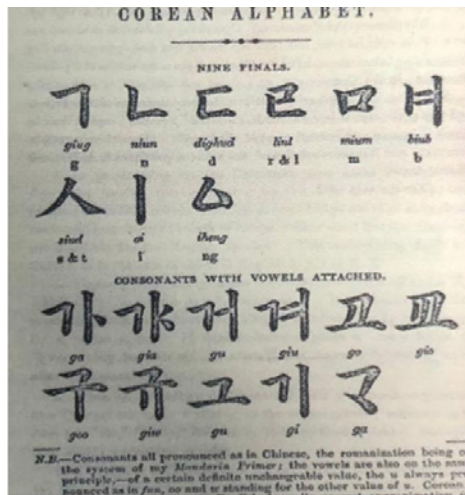
1.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2) (Henry G.Appenzeller)(1858~1902)

(한국 체류 1885~1902)(한국 이름 : 아편설라)

성경을 한글로 번역함으로 이 땅에 여명의 빛이 들어오다.

공식적인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스코틀랜드 출신 중국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는 만주에서 1882년에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1887년에 《예수성교전서》란 이름으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였다. 존 로스(1842-1915) 선교사는 스코틀랜드연합 장로교에서 중국 산둥반도에 파송된 선교사로 1872년 4월 23일 상해 도착하여 선교 활동을 펼치다가 존 로스는 1873년 윌리엄슨(1829-1890)목사로부터 6년 전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의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사실을 전하자, 토마스 선교사의 열정에 감동받은 존 로스는 조선을 마음에 품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아시아의 마지막 땅 조선에 복음의 문을 열겠다고 결심하고 서북인으로 청나라와 인삼무역을 하던 이응찬을 만나 한글을 배워 그들과 함께 최초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게 되었다.(*존 로스 선교사 이야기는 추후에 실을 예정임)



존 로스 선교사가 한글 공부한 자료

일본에 유학을 간 이수정은 일본에서 한문성경에 이두 토를 단 성경, 일명 《현토한한성서》(懸吐漢韓聖書)를 출간하고 이어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한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를 1885년에 출간했다. 바로 이 성경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고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에 들어왔다.

성경 번역에 열정을 품고 사역하다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신자가 늘면서 전도와 예배를 위한 한글 성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처음 로스 선교사가 만주에서 번역한 성경은 한반도 북쪽 지방의 사투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중부와 남부 지방 사람들에게는 불편했다.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보통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성경 용어도 여러 번역으로 인해 불편함이 많았다.



이수정이 번역한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

1887년 2월 7일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스크랜튼, 헤론 선교사는 '성경번역위원회'를 조직했는데,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번역책임자로 선정되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는 먼저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1887년 《마가의 전한 복음서 언해》를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간했다.

아펜젤러는 1890년에 로스가 번역한 《예수성교누가복음》을 수정한 《누가복음전》과 《보라달로마인서》를 편찬하고, 1892년에는 《마태복음전》을 번역했다. 《마태복음전》은 언더우드와 스크랜튼이 시작한 작업을 아펜젤러가 이어받아 완성한 것으로 기존의 일본에서 진행된 이수정 번역본이나 만주에서 진행된 로스 번역본을 수정한 것이 아닌 국내에서 이루어진 순수한 한글 번역이었다.

‘문자독점’ 타파한 성경보급



아펜젤러 선교사 가족

아펜젤러는 탁월한 성서번역가였다. 당시 조선사회는 한문을 중시하고 한글은 언문이라 천대했다. 아펜젤러는 한국 민중이 성경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한글성경 번역사업에 집중했다. 선비와 지배층이 문자의 혜택을 독점하면서 일반 백성을 우민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선교사들이 성경으로 문자 독점을 깨기 시작한 것이다.

아펜젤러는 언더우드 게일 스크랜턴 등과 함께 1892년 마태 복음을 시작으로 1900년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약성경 27권을 모두 번역해 ‘신약전서’를 내놓는다.

한글이라는 ‘감추인 보배 그릇’을 발견하고 그 안에 복음이라는 ‘보석’을 담았던 선교사들의 혜안을 생각하니 감탄이 절로 나왔다. 선교사들은 하급계층과 부녀자들을 주 선교 대상으로 삼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한글로 선교활동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선교사들의 선교 전략이 한글 보급의 물꼬를 튼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펜젤러 선교사 이야기 다음호에 계속, 은상철 장로)

르완다 브릿지 선교회 소식

브릿지 선교회는 르완다에서 사역하시는 김보혜 선교사님을 통하여 나비타레 지역의 학생 20명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후원을 받은 한 학생의 어머니께서 대표로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후원을 받은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모여 후원자와 브릿지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집시 종족 소식 (2024.6.20)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
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롬 10:13,14)

살롬~

귀한 사랑과 헌신을 변함없이 이곳 헝가리에 부어주시는 동역자님께 감사드리
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땅을 위해 손모아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가
득 넘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미스콜츠(얼소줄쳐마을)교회 어린이예배

할렐루야!

그동안 2년여동안 기도하며 바라던 어린이예배가 요지장로님, 3명의 동역자의
협력으로 드디어 5월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20여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하였는데 현재 70여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찬양을 배우며 뜨겁게 예배드리고 있
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교회의 형편(동역자, 헌신자, 화장실, 냉난방시설)과 목사님의
건강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동역자와 헌신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교회의 허락으로 감동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마치 한국의 여름성경학교처럼 너무 즐거워하며 말씀도 열심히 외우
며 주님의 법도를 배우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이 시작되면서 필요한 기도제목!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1600여명의 집시들이 살고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길 건



너 왼쪽마을은 상황이 열악하고(집, 도로, 목줄 풀린 많은 대형견) 거리에는 학교
다니지 않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른쪽 마을은 도로와 집
상태가 비교적 깨끗해 보입니다.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곳 사정과 분위기를 좀 더
느낄 수 있었는데, 새로 오는 행색이 지저분한 아이들을 반기지 않으며 아이들끼
리도 서로 어울리지 않고 보이게 보이지않게 차별과 계층이 있음을 많이 느꼈습
니다. 어느날 예배때 어린이들끼리 작은 싸움이 있었는데 형제들끼리 뭉쳐 패싸

움으로 커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헝가리 백인은 집시들을 싫어하고, 그나마 직업도 있고 형편이 좋은 집시들은 열악한 집시들을 싫어하는 차별과 냉대를 느끼며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했지만.. 요지장로님, 마리커, 매린더, 마리커(동명) 동역자들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잘 섬기는 모습을 보니 다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선교방문.. (성도들의고백 무싸이~)

한국 신광교회에서 김민수집사님, 문정희권사님이 방문하시어 장학금과 여러 가지 아이들 선물로 섬겨주셔서 집시 형제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율동도 하며 교제하였고, 특히 두분이 함께 뜨겁게 눈물

로 기도해주신 것을 집시 형제들이 기억하며 마음에 크게 남아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섬겨주신 분들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자신들도 무싸이! 무싸이!(해야만합니다)하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고백하며 저희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웃어주었을때 너무도 큰 위로와 보람이 되었습니다.

두 분의 헌신과 사랑이 고스란히 저희 가족에게도 전달되어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손길을 체험하는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시형제들에게 깃잎 씨앗이 전달되어 시범적으로 재배를 시작하였고 드디어 싹이 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되면 더 많이 심어 한국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큰 도시 한인사회에 판매되어 집시가정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이헤이교회 이전

7여년 동안 사역하던 우이헤이 예배처소를 이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시마을에서 5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지붕이 너무 낡아 여러번 수리하였지만 현재는 대들보와 나무들이 썩고 낡아 비가 새고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수리 비용이 집값만큼 예상 되기에 집시 마을과 최대한 가까운곳 적당한 예배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음버스로 집시마을에 들어가 함께 예배 드리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집시마을 중앙에 나라에서 관리하는 빈집이 더러 있음을 보았고 여러 집시형제들과 함께 열심히 수소문하며 알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예배 처소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보드록혈룸교회



펠수레그메츠 교회



깃잎재배



보드록혈룸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우이헤이 집시마을

기도제목

1. 예수님의 무한용서, 십자가 사랑이 저희 가슴에 늘 흐르도록..
2. 샤폰리우이헤이 마을 가까이에 예배 처소가 잘 구해지도록..
3. 미스콜츠 열쇠줄쳐마을이 복음화 되며 어린이로부터 부흥하여 형제끼리 차별과 냉대가 사랑과 섬김으로 변화되도록..
(동역자 요지장로님, 마리커, 맬린더, 마리커가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도록)
4. 부모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

변함없는 기도와 후원 감사드리며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홍택수 노인영(은혜)선교사 올림

 **기도노트** 예배와 성경읽기를 하며 주신 기도제목들을 적어보세요